

전남 중부권

나주 산포 지식천 제방길과 농로 잇는 경사로

부실시공 급경사가 죽음 불렀다

30도 이상 경사각에 농기계 전복 등 잦은 사고 발생

주민들 수차례 선형변경 요구했지만 목살 농민 숨져

나주시가 산포면의 지식천 제방로를 콘크리트포 포장하면서 제방둑밀 농경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를 개설했으나 선형이 급경사로 이뤄져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나주시는 제방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방밀에 있는 농경지에 농기계 등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방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7개의 경사로를 새롭게 신설했다.

12일 나주시와 산포면 덕례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억6000억원을 들여 덕례교에서 신가고 초입까지 1.5km 구간의 뚝방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제방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해당 경사로가 제방둑을 직각으로 오르도록 선형이 급경사로 이뤄지다 보니 농기계 운행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농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김모(52·산포면) 씨가 경운기를 타고 해당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경운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인근 마을주민 박모(58)씨도 “경운기를 몰고 경사로를 오르다가 경운기가 뒤로 밀리자 간신히 뛰어내려 화를 모면한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다”며 “급경사인 경사로 선형을 완만하게 해줄 것을 나주시에 수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씨의 경우도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 빈번하게 발생, 농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첫



경사각이 30도가 넘는 나주시 산포면 지식천 제방 경사로. 지난 2일 경운기를 몰고 내려오다 전복돼 숨진 김모씨(52)의 경운기만 덩그러니 현장에 남아있다.

번째 희생양이 됐다며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구간 7개 경사로의 경우 공사 시방서에는 경사각이 15도로 시공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현장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30도 이상 급경사로 이뤄지는 등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나주시의 준공검사 과정에 큰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경우”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형 변경이 어려운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운행을 못 하도록 폐쇄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필기자 srchoi@

K-WATER 주민위한 수돗물 행정

영산강 하구둑 관로 이설공사 단수 없이 완료

영암과 목포를 잇는 영산강 하구둑 관로 이설공사가 단수없이 완료됐다.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최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공사와 관련, 하구둑 어도구간 관로 이설작업을 단수 없이 마무리했다.

물론 공장가동 중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작업 예상구간에 임시연결관을 설치, 단수없이 관로교체를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지만 밤샘 작업끝에 당초 예상보다 9시간이나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이설한 관로는 목포·무안·신안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직경 1350mm)의 일부이다.

이석천 본부장은 “지남해부터 저장관로 시·중점부 연결을 무단수로 시행하는 등 단수없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기자 song@



전남경찰, 나주시 소통·화합 현장 포럼

전남경찰청은 지난 9일 나주경찰서 이화마루에서 ‘지휘부 중부권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승택 전남경찰청장과 박병동 나주경찰서장을 비롯한 각급 과장, 담당관 및 중부권 7개 경찰서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기능별 주요 업무와 각 경찰서별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ung@

나주 미래산단 3년만에 재추진

G산업개발 200만㎡ 개발

전국 첫 민간 투자방식 개발로 관심을 끌었던 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가 표류 3년여만에 재추진된다.

나주시는 민간 사업자의 포기로 중단됐던 왕곡면 일대 미래산단 사업시행사로 G산업개발이 참여, 오는 2015년까지 200만㎡를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G산업개발은 토지보상비와 조성비 등으로 2800억원을 투입하며 다음달부터 보상에 들어가 10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비를 투자, 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선(先)개발한 후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미래산단에는 물류와 전기, 통신제조업, 혁신도시 연관 기업 등을 유치해 계획이며 특히 일본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단계로 나머지 100만㎡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 표류로 지난 4월 미래산단 예정지 일대가 3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보상작업 등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15일 사업시행사와 투자협약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형기자 chung@

지자체 직속기관 행정 사각지대

농기센터·보건소 등 행·재정 기능 독립 운영 감사·인사 업무 통제 안돼 근무태만 등 발생

일선 지방자치단체내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들에 대한 행정통제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직속기관들은 해당 지자체 산하 기구인 실·과·소에 포함돼 있으나 행·재정 기능은 독립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을 갖고 있는 실·과장은 2000만원 범위내에 한해 센터장은 2억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별도의 관인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대다수 공문이 센터장 명의로 처리(발송)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국가기관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업기술센터가 행태만 일선 지자체 산하로 소속되어 있을 뿐 독립기관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집행품의 처리에 있어 함께 전

또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무 평가 권한에 실·과장의 평정절차 후 부단체장이 최종 평정확인한 것과 달리 이들 센터 직원들은 일반직과는 달리 단일 호봉제인 점을 감안, 센터장이 최종 평정과 확인권까지 맡고 있어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본청의 감사와 인사관리 부서에서 이들 직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무지도 단속 및 업무추진확인 등 행정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군의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모 보건소장은 지나친 음주상태에서 의회에 출석, 품위 손상은 물론 의회를 경시하는 사태를 빚어 직위해제 조치돼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99년부터 12년째 L 센터장이 불박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 북

정읍 내장산 사계절 오감 만족

차없는 소통길·치유의 숲 등 청정자연 공간 조성

정읍 내장산 사계절 내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정읍시는 ‘정읍사 오솔길’과 연계한 자전거 일주 코스를 개설하고 편백나무를 활용한 ‘치유 숲’을 조성하는 등 도시민들이 가족단위로 내장산 일대에서 청정자연을 즐기며 쾌적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 없는 아름다운 내장산 소통길 = 내장산 제4 주차장에서 내장산 터미널까지 4km 구간으로 비상수기에 운영된다. 시는 이 구간을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및 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 정읍사 공원을 출발해 월영마을~내장호~정읍천~정읍사 공원까지 17.1km를 일주하는 코스이다. 정읍사공원~월영마을(6.4km) 1 코스는 소나무·신우대 숲길로, 내장호 주변(4.5km) 2 코스는 내장 호수길로, 문화광장~정읍공원(6.2km) 3 코스는 정읍천 자전거길(Tour Biking)로 만들어진다.

한편 정읍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내장산조각공원 공영장(감오동 화학농민회명 100주년 기념탑내)에서 ‘차없는 아름다운 내장산 소통길’ 선포식을 개최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숲을 만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치유의 숲’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편백나무 주변에는 정읍을 대표하는 단풍나무와 상록수, 낙엽수, 침엽수, 활엽수도 식재된다.

산책로에는 현무암 관석사이에 맥문동을 심고 언덕구간에 목재 테크를 설치하는 등 곡선형 산책로를 만들어 휴식과 산림욕이 가능하도록 꾸며진다.

산책로에는 현무암 관석사이에 맥문동을 심고 언덕구간에 목재 테크를 설치하는 등 곡선형 산책로를 만들어 휴식과 산림욕이 가능하도록 꾸며진다.

한편 정읍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내장산조각공원 공영장(감오동 화학농민회명 100주년 기념탑내)에서 ‘차없는 아름다운 내장산 소통길’ 선포식을 개최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세원셀론텍, 군산경제자유구역에 제2공장 기공식

세원셀론텍(주)은 지난 10일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내 군장 국가산업단지에서 플랜트기 생산 제2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현을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강봉국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문면호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새만금 화물 통관 감사 총평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세원셀론텍은 10만1282㎡(3만여평) 규모의 경남 창원 제1공장을 지난 1977년부터 40여년째 가동중이다. 제2공장인 ‘군산공장’은 19만8345㎡(2만여평) 규모에 최신 생산시설과 체계화된 대규모 공급능력을 갖추게 된다.

세원셀론텍은 오는 11월경 1차 준공과 동시에 이미 확보된 수출물량의 본격적인 생산기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일자리 희망이음’ 산·학·관 MOU체결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학생-지역우수기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발대식을 갖고 산·학·관 MOU를 체결했다.

전북도는 ▲기업과 대학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전략산업분야 강사 지원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DB 구축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농기센터 토종 미꾸리 치어 농가 분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는 최근 민간 종묘생산 농가에서 인공부화한 길이 3cm 내외의 미꾸리 치어 20만마를 관내 미꾸리 양식농가에 분양했다.

적용, 60일 이상 육성한 것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관내 추가양 입소에 공급해 남원산 토종 미꾸리 브랜드를 소비자와 전국 추어탕 업소에 확실히 인식시켜 남원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문화회관 우수기관 선정 장관상 수상

김제 문화예술회관이 전국 문화회관 우수 기관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문화회관 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인 ‘우리는 예술회관으로 소통해요’를 운영, 교사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

순창 보건의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캠페인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만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9일부터 순창읍, 쌍치, 북촌, 동계지역 5일장을 찾아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과 금연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 9대 생활수칙 리플렛과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신나는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 지난 10일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린 ‘고창복분자 푸드(Food)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수박모자를 쓰고 수박굴리기를 시합을 벌이고 있다.

신나는 고창복분자 푸드 페스티벌. 지난 10일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열린 ‘고창복분자 푸드(Food)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수박모자를 쓰고 수박굴리기를 시합을 벌이고 있다.

부안군 부실행정 무더기 적발

전북도 감사... 농공단지 조성 등 84건 71명 문책

전북도는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부안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84건의 위반·부당사항을 적발하고 71명(기관장 1·직제 7·훈계 63명)을 문책했다. 또 18억6000여만원의 회수하거나 추정했다. 또 감사관 19명이 참여한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주요 적발사항은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관련 변경 용역 ▲청소년 수련원 건립 ▲관광명소화 사업 등이다. 아울러 ▲부안 해양테마파크(함상공원)조성 ▲공소 짓갈발효센터 건축 ▲수산물 유통산업거점 단지조성 ▲경도 노을빛 공원 조성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경도·공황간 해상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속도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권고했다.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관련 변경 용역’은 단순 토지이용계획만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미 수행한 성과품을 활용하여 변경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은 일반적인 시공업체에서 변경하여 시행하는 수준인데도 신규발주를 적용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의 길 명소화사업’등 4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방대한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사업비가 70억원에서 233억원으로 163억원이 증액됐으며, 건축 연면적 역시 2644㎡에서 6610㎡로 늘었다. 이번 감사에서 사업비 절감과 건물활용 극대화 위한 유사 대규모사업 연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이 밖에도 ‘우동 전일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협약서에 의해 주민이 부담할 사업비(7821만1000원)를 군에서 부담하고, 오수처리 특허공법 제안(1억4800만원)과 다르게 9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설계를 함으로써 비경제적인 공법선정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외부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임명하고 종합감사 종료시에 해당 시·군 간부와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감사 총평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